

세계도시동향

헤드라인뉴스	1	복잡한 도심, 좁은 도로에 적합한 화물 배송시스템 개발	리옹 등
산업·경제	4	프랑스 디지털산업 발전을 선도할 세계 최대 규모의 창업 인큐베이팅센터 설립 계획	파리
사회·복지	7	지역 예술가와 연계한 노인예술활동지원 프로그램, 'SPARC' 시행	뉴욕
	8	생활습관병의 예방 및 생활습관 개선을 위해 “건강추진 플랜 21” 수립 및 팸플릿 제작·배포	도쿄
	11	“장애인 고용·취업 추진 연계 프로그램 2013” 수립	도쿄
	13	정신건강 체크시스템인 ‘마음의 온도계’ 사이트 개설	교토
행정·교육	16	소비교육을 학교 교과과목으로 편입하기 위해 수업아이디어 공모전 실시	독일
환경·안전	18	도심 주요 호텔의 물사용량 줄이기 프로그램 시행	뉴욕
	19	도심에서 꿀벌정원 추진 프로젝트 실시	교토
	21	공기 청정도 경보의 역효과	유타
도시교통	22	구체적인 운행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파일럿 운전자 프로그램 시행	뉴욕
	23	미국 최초로 헬멧 대여하는 자동 판매기 설치	보스턴
	24	카셰어링 서비스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 마련	캘리포니아
	26	BRT와 Streetcar의 경제적 파급 효과	미국



복잡한 도심, 좁은 도로에 적합한 화물 배송시스템 개발

프랑스 리옹市 등 / 도시교통

- 유럽의 많은 도시들은 도심에 좁고 오래된 도로가 많아 화물 배송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유럽연합(EU)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City Move'라는 화물 배송시스템 개발 프로젝트를 유럽의 각 도시들과 함께 진행 중임.
- 오래된 도시의 열악한 교통 네트워크 상황에 적합한 화물 배송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City Move' 프로젝트는 새로운 컨테이너 시스템(Bento Box 또는 Smart Package System)을 통해 화물 배송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 있음. 이 시스템의 핵심은 카트시스템과 적재시스템에 있음.
 - 다양한 크기의 배송품들을 적절한 크기의 컨테이너를 통해 처리하게 되는 이 시스템은 효율적으로 빠르게 화물을 적재할 수 있으며, 지정된 지점에 배달된 물품들은 고객들이 미리 지정되어 있는 컨테이너에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찾아갈 수 있음.
 - 일본 도시락(일명 'Bento')이 여러 반찬을 담기 위해 다양한 크기의 공간으로 나누어져 있는 모습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이 화물배송시스템은 프랑스 리옹에서 처음으로 2012년부터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이 화물배송시스템은 지역별로 컨테이너가 배달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근본적인 단점이 있지만, 배송을 위한 적재, 하적의 시간을 줄일 수 있고, 고객이 화물을 받기 위해 지정된 장소에 대기할 필요가 없는 등 불필요한 시간들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 도심 혼잡을 완화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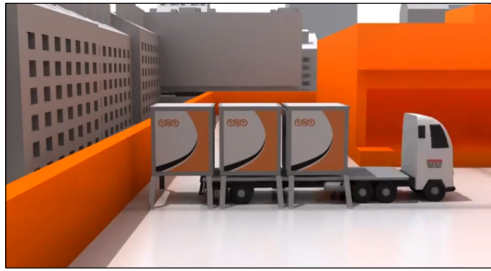


유럽의 많은 도시에서 만날 수 있는 좁고 오래된 거리의 모습/ 이러한 도로를 이용하는 배송시스템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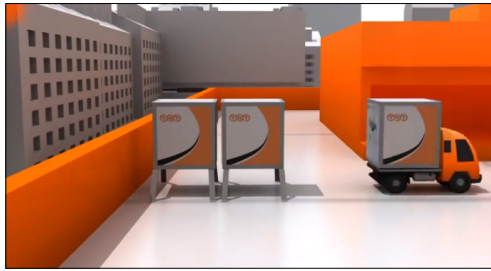


프랑스 리옹에서 시행중인 Bentobox 파일럿 프로그램(다양한 크기로 조합되어 있는 컨테이너가 지역 별로 배달된 후, 고객들이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자신의 물건을 찾아가고 있음)

- 현재 실험중인 또 다른 형태의 아이디어는 다중 적재함을 이용하여 대형트럭과 소형 트럭을 지역별로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구체적으로 보면, 교통이 원활한 곳에서는 대형트럭이 3개의 분리·결합이 가능한 대형 컨테이너를 지역 거점까지 운반하고, 좁은 도심 도로에서는 소형트럭을 이용하여 개별로 분리된 컨테이너를 각 지점 또는 고객에게 배송하는 시스템임. 이러한 배송시스템을 위해 화물트럭도 새로 개발된 상태임.



3개의 분리 가능한 대형컨테이너가 대형트럭에 의해 지정된 지점에 배송



도심의 각 지점으로 물건을 배달하기 위해 소형트럭이 분리된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모습



좁은 도심에서 운전이 쉽도록 고안된 컨테이너 차량의 모습

도시의 교통상황에 맞게 화물컨테이너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도록 고안된 화물시스템

- 유럽에서 시도되고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의 화물배송시스템은 아직 준비단계나 실험 단계에 있지만, 서울시도 오래된 도시로 도심이 복잡하고 좁은 길이 많아 이러한 새로운 화물배송시스템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직접 고객에게 화물을 전달하는 배송시스템인데, 앞으로 맞벌이가구와 1인가구가 급격히 늘어나면 집이 비는 경우가 많으므로 유럽의 도시처럼 고객이 원하는 시간에 근처의 수화물센터에서 화물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배송시스템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http://www.citymoveproject.eu/>

<http://www.theatlanticcities.com/commute/2013/09/search-better-delivery-truck-system-old-narrow-european-streets/6900/>

<http://www.youtube.com/watch?v=9Kh1C2Q6U-w>

산업·경제

프랑스 디지털산업 발전을 선도할 세계 최대 규모의 창업 인큐베이팅센터 설립 계획

파리市 / 산업·경제

- 파리市는 파리 13구에 자리한 프레시네(Freyssinet) 건물을 리노베이션하여 2016년까지 세계 최대 규모의 창업 인큐베이팅센터를 설치하고, 1,000여 개의 혁신적인 창업 기업을 유치하여 향후 프랑스 디지털산업의 발전을 선도하는 역할을 맡도록 할 계획임. 현재 프랑스 사회는 디지털이 진정한 성장 동력이며, 프랑스 경쟁력의 핵심열쇠라고 인식하고 있음.
- 파리市는 디지털 경제와 스타트업 기업(혁신적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설립된지 얼마 되지 않은 창업기업으로 고위험·고성장·고수익 가능성을 지닌 기술·인터넷 기반의 기업을 지칭)을 발전시키려는 정책의 일환으로 본 인큐베이팅센터 설치를 계획하면서, 이 센터가 실질적인 창업양성소로서 기술자들과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고 창업기업 간의 협력네트워크까지 발전시켜 주길 기대하고 있음.
- 창업 인큐베이팅센터가 자리할 건물에는 천여 개의 입주사뿐 아니라 입주사 간의 상호원조 프로젝트를 지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부서와 기술지원 부서 역시 포함될 예정임.



완성된 프레시네 건물의 입구 구상도(출처: ©Wilmotte & Associés SA)

- 3만㎡의 면적에 설치될 이 인큐베이팅 센터에는 팹랩(Fablab; Fabrication Laboratory(제작 실험실)의 약자로 디지털 기기, 소프트웨어, 3D프린터와 같은 실험 생산 장비를 구비해 학생과 예비 창업자, 중소기업가가 기술적 아이디어를 실험하고 실제로 구현해보는 공간) 한 곳과, 대회의실을 포함한 다양한 크기의 회의실 등을 마련하여 서로 다른 자원을 가진 디지털 산업 입주사들이 공동공간에서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또 입주사들에게는 넉넉한 작업공간을 제공함과 함께 24시간 문을 여는 식당 겸 바 등에서 자유로운 만남과 기술 및 아이디어 교환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할 예정임.
- 이 세계 최대 규모의 디지털 인큐베이팅 센터 설치 계획은 대부분 개인투자자들의 투자를 받아 실현될 예정임.
- 인큐베이팅센터가 들어설 이 프레스네 건물은 현재 프랑스 철도공사(SNCF) 소유로 가격이 7천만 유로에 달하는데 파리는 이 사업에 참여하는 서로 다른 여러 기관들의 원활한 협력을 위해 우선 이 건물을 매입했음. 파리는 건물 주변지역을 정비하면서, 빌딩 리노베이션을 위한 민간사업자 컨소시엄을 구성할 예정임.
 - 디지털 산업에 적합한 작업공간을 만들기 위한 리노베이션 계획에는 6천만 유로가 필요한데, 이 계획에 참여한 프랑스 예금보험금고와 예금공탁공고는 투자설명회를 열어 일반 투자자들을 유치할 예정임.
 - 리노베이션 작업을 맡은 건축가 장-미셸 윌모트(Jean-Michel Wilmotte)는 이 새로운 공간을 일종의 그릇과 같은 이미지로 개념화하여, 교환, 선의의 경쟁, 공유를 촉진하는 매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리노베이션할 계획임.
 - 파리는 센터 주변 10만㎡의 공간을 활용하여 근무자들을 위한 24시간 영업 식당, 공원과 스포츠 설비를 확충하고, 쇼핑공간과 사회적 주택(임대주택) 등도 마련할 예정임.
- 프레스네 빌딩 리노베이션 프로젝트는 또 파리 센강의 좌안 지역을 재생하려는 맥락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음. 파리는 프레스네 리노베이션 프로젝트가 이미 이

구역에 존재하는 혁신분야 연구 네트워크를 발전시키고, 디지털과 혁신기술 분야에서 뚜렷한 중심축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임.

- 그동안 진행된 파리 시내와 교외에 대한 도시계획 연구를 통해 센강의 좌안은 새로운 디지털 환경 구축에 필요한 조건과 주체들을 결집시킬 강점을 지닌 지역으로 밝혀짐. 이 구역에는 이미 디지털 분야 관련 대기업이나 공기업들과 신기술개발 기관(대학, 국립도서관, 연구소, 스타트업 기업들) 간의 네트워크가 상당한 크기로 발전했음.
- 센 강 좌안은 혁신 분야의 연구자들이 밀집한 곳으로, 이 지역은 또한 이미 설치된 중소 인큐베이팅 센터, 창업 양성센터, 호텔형 사무건물 등 신생 기술기업들을 수용하는 구조들을 갖추고 있음.



프레시네 빌딩(지도 가운데 붉고 긴 직사각형)을 중심으로 한 센강 좌안의 산학협력 네트워크 지도. 검은 건물들은 창업센터들이며, 붉은 건물들은 인큐베이팅 센터들임. 지도에 표시된 붉은 점들은 지역내 혁신기업들이며, 녹색 점들은 고등교육기관임. 노란색으로 색칠된 공간은 향후 개발검토 지역임.

http://www.paris.fr/accueil/accueil-paris-fr/halle-freyssinet-1000-start-ups/rub_1_actu_135590_port_24329

http://www.etnews.com/news/special/2746583_1525.html

<http://besuccess.com/2013/06/startup/>

사회·복지

지역 예술가와 연계한 노인예술활동지원 프로그램, ‘SPARC’ 시행

뉴욕市 / 사회·복지

- 뉴욕市는 노인들이 해당 지역사회에서 양질의 삶을 영위하고,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노인예술활동지원 프로그램(SPARC : Seniors Partnering with Artists Citywide)을 3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음. 이 프로그램은 지역 예술가들을 유치하여 노인들을 위한 예술 강좌를 개설하고, 노인들의 창작 활동과 지역 주민들 간의 교류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뉴욕市 문화국과 노인복지국(Department for the Aging), 5개 區가 협력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참여하는 예술가들은 급여를 받게 됨. 뉴욕市는 참여 예술가들이 연속적으로 2년 이상 같은 센터에서 일할 수 없도록 자격제한을 두어 다양한 예술가들에게 참여기회를 주고 있음. 또, 스페인어 사용 인구가 많아짐에 따라 남미계 스페인어 가능 예술가에게는 선정 시 가산점을 주고 있음. 참여 예술가는 온라인을 통해 매년 9월에 선발함.
- 예술가들의 지원자격을 보면, 18세 이상의 뉴욕 거주 예술가로서 해당 지역 노인들과 장기적으로 의사소통하며 함께 작업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하며, 이 프로그램 외 다른 곳에서 지원금 혹은 급여를 받고 있지 않아야 함. 그리고 풀타임 학생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야 하며, 여러 지역에 복수 지원할 수 없음.
- 프로그램 참여 예술가들은 지원자 중 평가를 통하여 선발되며, 심사는 해당 지역 문화예술위원회와 뉴욕市 문화국에서 함께 담당함. 참여 예술가 선정 시, 노인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일을 한 경험이 있는 자,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활동으로 적합한 작품활동을 하는 경우, 뛰어난 작품활동 실적이 있는 경우,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경제적이면서도 주어진 시간 안에 가장 적합한 결과물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 등에는 가산점을 줌. 온라인을 통해 작성되는

지원서에는 4분짜리 영상물, 지원서(에세이 형식), 5~10개 이상의 작품 이미지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이 프로그램을 통해 만들어진 예술품 혹은 활동은 반드시 문화적인 것이어야 하며, 모든 작업은 해당 센터를 베이스로 하고, 수업이나 워크숍, 발표회 등과 연계하여 참여 예술가들과 노인들이 상호 교류할 수 있어야 함.



지역 예술가의 참여 하에 이루어지는 다양한 노인 예술 활동

<http://www.nyc.gov/html/dcla/html/sparc/sparc.shtml>

<http://www.bronxarts.org/sparc.asp>

<http://www.brooklynartscouncil.org/documents/1751>

<http://www.lmcc.net/residencies/sparc/apply>

<http://www.nydailynews.com/new-york/seniors-feel-loss-center-article-1.1245324>

<http://www.lmcc.net/residencies/sparc>

생활습관병의 예방 및 생활습관 개선을 위해 “건강추진 플랜 21” 수립 및 팸플릿 제작·배포

도쿄都 / 사회·복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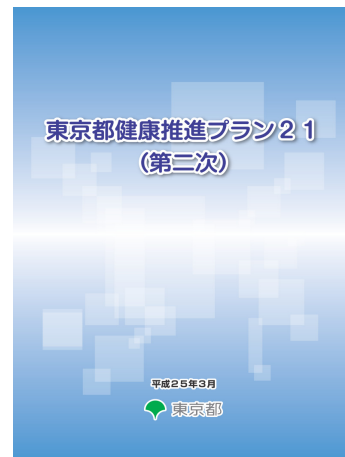
- 도쿄都 보건복지국은 도민들의 생활습관병 예방 및 생활습관 개선을 위해 2013년 3월에 “도쿄都 건강추진 플랜 21(제2차)(東京都健康推進プラン21)”을 수립하였는데, 최근 이의 내용을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 도민들이 실천할 수 있도록 “건강을 위한 힌

트 모음집”이란 팸플릿을 제작하여 배포함.

- 이 팸플릿은 식생활이나 운동 등 생활습관의 개선을 위한 팁을 4컷의 만화로 알기 쉽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 특징으로, ① 생활습관병 예방, ② 생활습관 개선(식생활, 신체 활동·운동, 휴식, 음주, 흡연, 치아와 구강건강), ③ 마음 건강정보, ④ 이웃 및 지역과의 관계, ⑤ “도쿄都 건강추진 플랜 21”의 소개 등의 내용을 A5 사이즈로 12페이지에 담고 있음.



팸플릿 “건강을 위한 힌트 모음집”



도쿄都 건강추진플랜 21(제2차)

- “도쿄都 건강추진 플랜 21(제2차)”은 건강증진법에 근거한 “도도부현 건강증진계획(都道府県健康増進計画)”으로서 도민이 주체적으로 임하는 건강만들기(健康づくり)를 사회전체가 지원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계획임. 이 계획은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고 있음.
 - 이 계획에서는 종합목표를 ‘건강수명 연장’, ‘건강격차 축소’로 정하고, 3개 영역으로 나누어 14개 분야별 목표를 설정하였음.
 - 도내 전문가를 비롯한 도민의 건강과 관련성이 깊은 관계기관의 대표로 구성된 책정회의(策定会議)에서 도출된 의견을 바탕으로, 도민과 관계기관이 적극적으로 건강만들기에 임할 수 있도록 각각 기대되는 활동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이 이 계획의 특징임.

도쿄도 건강추진 플랜 21(제2차)의 분야별 목표 및 지표

영역	분야	분야별 목표	분야별 목표 지표
영역 1. 주요 생활습관병의 발병 예방 및 중증화 예방	암	암의 75세 미만 연령조정사망률(年齢調整 死亡率) 감소	인구 10만 명당 암에 따른 75세 미만 연령조정사망률
	당뇨병·대사증후군 (メタボリック シンδροーム)	당뇨병에 따른 합병증 발생률 감소	① 인구 10만 명당 당뇨병 신증(糖尿病 腎症)에 따른 신규 투석 도입률 ② 인구 10만 명당 당뇨병 망막질환으로 인한 실명 발생률
	순환기 질환	뇌혈관질환 및 허혈성 심장질환의 연령조정사망률 감소	인구 10만 명당 뇌혈관질환 및 허혈성심장질환에 따른 연령조정사망률
	COPD	COPD(만성 폐쇄성 폐질환)에 대하여 알고 있는 도민의 수 증대	COPD에 대한 인지도
영역 2. 생활습관 개선	영양·식생활	적절한 양과 질의 식사를 하고 있는 도민의 수 증대	① 야채 섭취량(1인당)이 350g 이상인 자의 비율(20세 이상) ② 식염 섭취량(1인당)이 8g 이하인 자의 비율(20세 이상) ③ 과일 섭취량(1인당)이 100g 미만인 자의 비율(20세 이상) ④ 지방에너지 비율이 적정범위 이내(20% 이상 25% 미만)에 있는 자의 비율(30~69세)
	신체활동·운동	일상생활에서 신체활동량(보행수) 증대	① 보행수(1일당)가 8,000보 이상인 자의 비율 ② 보행수(1일당)가 하위 25%인 층위의 평균 보행수
	휴양	수면에 만족감을 느끼는 도민의 비율 증대	① 수면시간이 충분하거나, 거의 충분하다고 느끼는 자의 비율 ② 불면증이 거의 없거나 있더라도 드문 자의 비율
	음주	생활습관병의 위험을 높일 정도로 음주를 하고 있는 도민의 비율 감소	생활습관병의 리스크를 높일 정도의 음주를 하고 있는 자의 비율(1일당 순알콜 섭취량이 남성 40g 이상, 여성 20g 인 자의 비율)
	흡연	성인흡연율 감소	성인 흡연률
	치아구강 건강	치아·구강 상태에 대체로 만족하고 있는 도민의 비율 증대	치아·구강상태에 대체로 만족하고 있는 자의 비율(80세 이상)
	마음의 건강	우울증 성향, 불안성향이 강한 도민의 비율 감소	지원이 필요할 정도의 심리적 고통을 느끼는 자(K6 합계점 10점)의 비율
영역 3. 생애단계에 따른 건강만들기와 건강 지원을 위한 사회환경 정비	차세대 건강	운동을 습관적으로 하는 어린이 비율 증대	1일 60분 이상 운동·스포츠를 하는 어린이·청소년 비율
	고령자 건강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능 유지	① 지역에서 활동하는 단체의 수 ※ 건강, 보육지원, 고령, 장애, 생애학습 등 각 부서에서 파악 가능한 단체(각 부서의 공공시설 등에 등록 및 이용실적이 있는 단체, 부서가 활동을 직접·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단체)의 수 ② ①에 해당하는 단체의 연간활동 횟수
	사회환경 정비	지역 내 네트워크 양성	① 지역에서 활동하는 단체의 수 ※ 건강, 보육지원, 고령, 장애, 생애학습 등 각 부서에서 파악 가능한 단체(각 부서의 공공시설 등에 등록 및 이용실적이 있는 단체, 부서가 활동을 직접·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단체)의 수 ② ①에 해당하는 단체의 연간활동 횟수

- 팸플릿의 주요 배포처는 각 구시정촌, 관련단체, 보건의료단체, 의료보험기관, 교육기관 등이며, 발행부수는 20만 부임.

<http://www.metro.tokyo.jp/INET/OSHIRASE/2013/09/20n9h900.htm>

http://www.fukushihoken.metro.tokyo.jp/kenkou/kenko_zukuri/kenkousuishinpuran21/dainiji_plan.html

<http://www.metro.tokyo.jp/INET/OSHIRASE/2013/09/DATA/20n9h900.pdf>

“장애인 고용·취업 추진 연계 프로그램 2013” 수립

도쿄도 / 사회·복지

- 도쿄도 복지보건국과 산업노동국은 최근 공동으로 “장애인 고용·취업 추진 연계 프로그램 2013(障害者雇用・就労推進 連携プログラム2013)”을 수립하였음.
- 본 프로그램은 도쿄도 장애인 취업지원협의회가 2008년 11월에 수립한 “수도 도쿄 장애인 취업지원 행동선언(首都TOKYO障害者就労支援行動宣言)”과 “장애인 고용·취업 추진 TOKYO 플랜상 행동지침(障害者雇用・就労推進TOKYOプラン, 行動指針)”을 구체화하는 금년도 사업계획임.
- 2012년 6월 1일 현재 도쿄도내 민간기업이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수는 14만 1천명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으며, 2012년 도내 헬로우 워크(ハローワーク)의 취직건수는 5,161명으로 어려운 고용상황 속에서도 3년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음.
 - 2013년 4월부터는 장애인 법정 고용비율이 1.8%에서 2.0%로 증가하였으며, 동시에 장애인을 고용해야 할 사업주의 범위 역시 종업원 56명 이상에서 50명 이상으로 확대되었음.
 - 도쿄도는 이러한 장애인 고용의 흐름을 지속적으로 정착시키고 한층 더 활성화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취업을 다음과 같이 지원함.

장애인 고용·취업 추진 연계 프로그램 2013의 개요

프로그램	주요 내용
지역 취업 지원체제 강화	가까운 지역에서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제 강화 - 구시정촌 장애인 취업지원사업 총실(⇒ 사업 2-1 도쿄도 실시)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에 대한 지원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에 대한 적극적 지원 추진 - 장애인의 기업견학 코디네이터 사업(⇒ 사업 5-5 도쿄도 실시) - 장애인 취업 촉진 파트너십 사업(⇒ 사업 5-6 도쿄도 실시)
장애인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장애인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사업 추진 - 중소기업 장애인 고용지원 조성사업(⇒ 사업 16-1 도쿄도 실시) - 맞춤형 장애인 고용지원사업(⇒ 사업 16-7 도쿄도 실시)

- 효율적인 프로그램의 추진을 위하여 도쿄도는 8개 단체가 협력하여 만든 49개 장애인 고용 촉진 제후 프로그램을 사례로 제시하고 있음.

장애인 고용·취업추진 연계 프로그램의 사례(전체 49개 사례 중 예시)

구분	사업명	내용
지역의 취업지원 체제 강화	사업 2-1 구시정촌 장애인 취업 지원 사업 총실(도쿄도)	가까운 지역기관에서 취업·생활측면의 지원을 일체적으로 제공하여 장애인의 일반취업을 촉진함.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에 대한 지원	사업 7-1 취업지원체제 레벨업사업(도쿄도, 도쿄 장애인직업센터)	도쿄 장애인직업센터가 실시하는 “취업지원 기초교육”에 도쿄도의 “취업지원체제 레벨업 연수”를 통합하고 보다 전문적이고 실천적인 연수를 실시함.
	사업 5-2 장애인의 양태에 따른 다양한 위탁 훈련(도쿄도)	기업을 비롯한 사회복지법인, NPO 법인 등 다양한 위탁처에서 정신장애인, 발달장애인에 대한 포괄적 훈련을 실시함.
	사업 5-5 장애인의 기업견학 코디네이터 사업(도쿄도)	장애인이 기업 및 취업이행지원사업소(勞移行支援事業所)를 견학하면서 기업에서 일하는 장애인 등과 의견을 교환하는 장을 제공함.
	사업 5-6 장애인 취업촉진 파트너십 사업(도쿄도) 신규	취업지원기관과 기업에서 그룹작업과 직장실습을 실시하여 장애인의 직장실습의 장을 확충하고, 취업지원기관 및 기업과의 연계를 강화함.
장애인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사업 9-2 직업코치 지원사업 추진(도쿄도)	도쿄도가 자체적으로 “도쿄 직업코치(東京ジョブコーチ)”를 양성하고 처음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가서 직접 지원을 실시하여 장애인의 직장정착을 도모함.
	사업 11-1 기업에대한 장애인 고용 상담 실시(도쿄경영자협회)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는 기업에 대하여 개별적 상담을 실시하고 세미나를 개최함.
	사업 11-4 중소기업 장애인 다수 고용시설 설치에 대한 보조금 지원(도쿄도 노동국) 신규	장애인을 10인 이상 고용하고 고용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설치·정비한 중소기업의 사업주에 대하여 비용의 일부를 보조함.
	사업 11-9 정신장애인 고용안정 장려금 지원(도쿄도 노동국) 신규	중증 지적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을 고용함과 동시에, 이들의 업무수행을 위한 지원과 지도를 실시하고, 지원요원을 배치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원함.
	사업 12-5 기업워크숍 실시(도쿄 장애인직업센터)	특히 중소기업에 중점을 두고 기업의 요구에 맞는 다채로운 주제를 선정하여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촉진함.
	사업 16-1 중소기업 장애인 고용지원 조성사업(도쿄도)	정부의 “특정 구직자 고용개발 조성금” 수급 만료 후에도 장애인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장애인 임금에 대한 보조를 실시하여 장애인의 직장정착을 도모함.
	사업 16-7 맞춤형 장애인 고용 지원사업(도쿄도)	처음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지원 담당자가 채용전 환경정비부터 채용후 정착지원까지 일괄지원하고 그 성과를 사용자 단체 및 취업지원기관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와 공유하여 지역사회에 정보를 공개함.

<http://www.metro.tokyo.jp/INET/OSHIRASE/2013/09/20n9i100.htm>

<http://www.metro.tokyo.jp/INET/OSHIRASE/2013/09/20n9i101.htm>

정신건강 체크시스템인 ‘마음의 온도계’ 사이트 개설

일본 교토府 / 사회·복지

- 교토府는 9월 10일부터 시작된 자살예방주간을 맞이하여, 2013년 9월 한정으로 마음의 건강상태를 컴퓨터나 휴대전화로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정신건강 체크시스템인 ‘마음의 온도계(こころの体温計)’ 사이트를 개설하고, 시민들이 이용하도록 홍보하고 있음.
- ‘마음의 온도계’ 사이트의 이용요금은 무료이며, 체크 시작 전에 성별, 나이대만 기재하면 되고, 부가적인 개인정보는 입력할 필요가 없음. 본 사이트에서 취득한 정보는 통계적 목적으로만 이용할 예정임.
 - 본 사이트는 부민들이 정신건강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개설된 것으로 본 사이트에서 나온 결과는 자기판단에 따른 내용일 뿐 의학적 진단에 따른 내용은 아님.
- ‘마음의 온도계’는 ① 자신의 마음상태(본인 모드), ② 직계가족의 마음상태(가족모드), ③ 곤란할 때 극복하는 방법(스트레스 대처 유형 모드), ④ 알콜에 대한 대처방법(알콜을 검사모드) 등 4개 메뉴로 구분하여 현재 마음의 건강상태를 검사하며, 스트레스 정도에 따라 그림으로 결과를 보여줌.
 - 본인 모드에서는 자신의 스트레스도, 침체도를 체크할 수 있음. 본인의 건강상태나 인간관계, 주거환경 등에 따른 스트레스도와 침체도가 수조 안에 있는 금붕어의 그림으로 표시됨.



마음의 온도계상 본인 모드의 그림 설명



마음의 온도계 체크결과 예시

- 가족모드에서는 소중한 가족들의 건강상태를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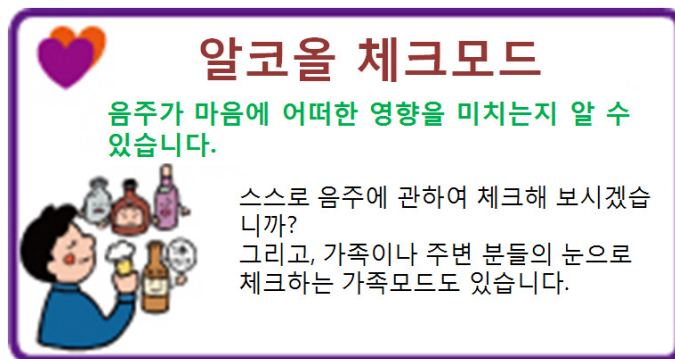
마음의 온도계상 가족 모드

- 스트레스 대처유형 모드에서는 스트레스를 느낀 후의 생각에 가장 가까운 대안을 선택하는 것으로, 자신의 유형, 동향, 특성, 조언이 표시됨.



마음의 온도계상 스트레스 대처타입 모드

- 알코올 검사모드에는 본인용과 가족용의 체크리스트가 있고 음주에 대한 조언을 받을 수 있음.



마음의 온도계상 알코올 체크 모드

- 교토府는 이외에도 자살예방 주간에 맞추어 자살예방 및 유족지원을 위한 심포지엄 개최, ‘교토 생명지원대(京のいのち支え隊)’ 가두행진 등을 실시함.

http://www.pref.kyoto.jp/chiiki/news/kokoro_taionkei.html#riyou

<https://fishbowlindex.jp/pkyoto/demo/index.pl>

<https://fishbowlindex.jp/pkyoto/demo/about.html>

행재정·교육

소비교육을 학교 교과과목으로 편입하기 위해 수업아이디어 공모전 실시

독일 / 행재정·교육

- 독일 연방정부는 소비교육을 소비정책의 중심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고, 2010년부터 소비자양성 과목 계획팀을 구성하여 학생들에게 일찍부터 소비생활을 잘 영위해나갈 수 있는 능력을 습득시키는 소비 조기교육 시행을 준비 중임.
- 오늘날 홍수처럼 쏟아지는 상품과 서비스 속에서 상품구매 경험이 적은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소비생활을 하기가 쉽지 않음. 실제로 많은 청소년들이 잘못된 소비를 통해 빚을 지거나 부모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임.
 - 현대사회에서 소비는 삶의 기초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에서 거의 다루고 있지 않음.
 - 청소년들에게 소비에 대한 기초지식 및 동등한 시장참여의 권리와 의무를 인식시키고 상품에 대한 올바른 판단과 구매결정 능력을 함양시키는 것은 중요한 교육 과제임.
- 이에 따라 독일정부는 각 연방주의 문화국, 소비자국과 함께 전국의 교사협회, 소비자협회, 경제협회, 학자, 교재출판사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2010과 2012년에 소비자양성 컨퍼런스를 개최함. 그리고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소비를 학교 교과과목에 편입할 수 있는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가 지난 7월 3일 발표되었음.
 - 공모전의 주제는 소비라는 테마의 구체화 및 소비 테마를 학교 수업에 끌어들이 수 있는 창의적 아이디어 개발, 그리고 학교 교과과정에 소비과목을 편입시킬 수 있는 방법의 개발임. 그밖에도 공모전은 교사 및 예비교사에게 소비 수업에 관한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한 목적도 동시에 가짐.

- 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의 학생들을 위한 수업 아이디어 개발로 함. 지원 자격은 학교수업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고 있으며 무엇보다 청소년들의 최근의 소비욕구와 소비패턴을 잘 알고 있는 사범대 대학생, 교사연수생, 젊은 교사, 박사급 젊은 교육학 연구자로 제한함.
 - 선정된 3명의 수상자는 각각 ‘은행계좌 바로알고 이용하기’, ‘대형마트들의 덫’, ‘스마트폰으로 하는 인터넷쇼핑에서 소비자권리와 의무’라는 주제로 수업 아이디어와 수업방식을 개발함. 이들에게는 우승상금 외에도 수업교재 출판기회가 부여됨.
- 현재 학교에서 소비교육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주는 쉘레비히-홀스타인주와 바이에른주 두 곳임.
- 쉘레비히-홀스타인주는 2009년부터 가사·실업과목을 소비자양성과목으로 바꾸고 교과과정을 두 가지 핵심영역(① 소비와 생활방식, ② 영양과 건강)으로 나누어 진행함.
 - 바이에른주는 18개교를 시범학교로 지정해 경제과목과 같은 인접과목 속에서 소비자양성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400명의 교사들을 소비자양성과목 교사로 재교육시킴.
 - 이밖에도 베를린市와 브란덴부르크주도 소비자 양성 과목 수업 준비팀을 만들어 시행준비에 들어감.

<http://www.bundesregierung.de/Content/DE/Artikel/2013/07/2013-07-03-umgang-mit-geld-will-frueh-gelernt-sein.html>

http://www.bmelv.de/SharedDocs/Pressemitteilungen/2012/246-AI-2.Runde-Ideenwettbewerb-Fuers_Leben_lehren.html

http://www.bmelv.de/SharedDocs/Pressemitteilungen/2013/209-RK-Preisverleihung_Fuers_Leben_lehren.html

<https://www.verbraucherkompetenz.de/>

<http://www.verbraucherbildung.de/2306.html>

환경·안전

도심 주요 호텔의 물사용량 줄이기 프로그램 시행

뉴욕市 / 환경·안전

- 뉴욕市 환경보호국은 장기적으로 수자원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심 주요 호텔 등을 대상으로 물 소비량을 대폭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시행함. 이번 프로그램 시행으로 각 호텔들은 연간 5% 이상의 물소비량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이번 프로그램은 그동안 주방시설이나 화장실 개선에 대한 노력이 주로 주거용 건축물에 한정되어 온 것을 감안하여 시작되었으며, 참여 호텔은 The Waldorf-Astoria, The Ritz-Carlton Central Park, The Intercontinental Times Square 등 11개로 뉴욕시 호텔연합(the Hotel Association)이 적극 참여를 돕기로 함.
 - 뉴욕市的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장기적인 수자원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호텔들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대부분의 호텔들과 상업용 건축물을 포함한 민간영역의 적극적인 참여가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함.
 - 뉴욕시는 2015년에 5,500만의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뉴욕의 주요 호텔들의 수자원 보호 노력이 도시 전체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노력과 의식, 환경친화적 사업을 홍보하는데도 효과적일 것이라 기대함.
 - 참여 호텔에는 자동물사용량 측정미터기(AMR: Automated Meter Reading)가 설치되어 실시간으로 호텔의 물 사용량이 측정됨. 처음부터 목표를 수치로 정해서 강제적으로 이번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미터기를 활용하여 12개월 동안의 물 사용량을 측정하고, 기간별, 시간대별 사용량과 절약 가능한 수치도 함께 분석 제공하여 해당 호텔에서 자율적으로 물사용량을 감소할 수 있도록 지원함.
- 호텔이 물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조치는 ① 상수도 시설의 누수를

잡고, ② 홍보를 통해 호텔 투숙객들이 자연스럽게 물을 아껴 쓸 수 있도록 유도하며,
③ 기술적으로 물 사용량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상수도 시설로 교체하는 것임.

- 각 호텔이 연간 5%의 물을 절약하면, 호텔별로 적게는 1,000여 만원에서 8,000 만원 정도의 상수도 사용료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음.

http://www.nyc.gov/html/dep/html/press_releases/13-088pr.shtml

<http://www.hotelbusiness.com/Design/HANYC-Partners-with-NYC-on-H2O-Conservation/45522>

도심에서 꿀벌정원 추진 프로젝트 실시

일본 교토市 / 환경·안전

- 교토市 나카교區는 교토市 11개區 중 녹지가 가장 적은 區로, 구내 가정과 기업에서 일본꿀벌(ニホンミツバチ)의 양봉을 장려함으로써 꿀을 만들기 위한 재료가 되는 꽃과 녹지를 확대하고자 하는 “교토 꿀벌정원 추진 프로젝트”를 2011년 10월부터 시민단체인 ‘교토 꿀벌모임’의 제안으로 시작하였음.
- 일본꿀벌은 몸길이 1.5cm로 비교적 몸집이 작고, 천정이나 지붕, 나무에 벌집을 만들며 성격이 대체로 온후하여 좀처럼 사람을 쏘지 않고 환경변화와 질병에 강한 꿀벌임.
- 나카교구청은 전국적으로 드물게 청사에 옥상정원을 만들고 2개의 꿀벌통을 설치하여 양봉을 하고 있으며, 2012년 9월 하순에는 꿀 채취에 성공하였음. 올해는 활동실적을 책자로 만들고, 양봉강좌 및 견학회를 개최하여 양봉에 대한 이미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음.
- 개시 2년째를 맞이하는 본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일반가정의 수는 아직 적지만, 기업들의 참여는 계속 증가 중이며, 오피스거리는 양봉이 활성화되고 있는 지역으로 잘 알려져 있음.
- 꿀벌이라고 하면 ‘찔리면 무섭고’, ‘몰려있으면 기분이 나쁜’ 곤충으로 인식되

는 경향이 있지만, 나카교區의 프로젝트에서 꿀벌은 도시녹화의 중개역할을 담당하는 익충으로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음.

- 이 프로젝트로 인해 2013년 5월 29일 구내 두 개의 회사와 고등학교가 프로젝트에 참가하여 새로 양봉을 시작하였으며, 개인의 양봉 신청건수도 지난해보다 22건 많은 177건이 접수되는 등 양봉에 대한 인기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음.
 - 그 예로 섬유도매회사인 마루이케후지이(丸池藤井)는 5층 본사빌딩 옥상에 꿀벌통과 옥상정원을 동시에 설치하여 녹화에 기여하고 있음.
 - 그러나, 독침을 가진 꿀벌을 꺼려하는 사람이 여전히 많기 때문에 주택이 밀집한 도시지역에서는 좀처럼 양봉을 시작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임. 실제로 구청에서 열리는 양봉강좌에 일반가정의 참여가 많아 2013년에는 20~30대 가정의 양봉 참여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였지만 그 성과는 저조하였음.
 - 이에 따라 나카교區는 일반가정에서 양봉을 활성화하기 위해 꿀벌을 쉽게 유인할 수 있는 유인제(미끼)를 개발하여 양봉 프로젝트에 활용할 예정임.
- 유인제를 개발한 교토학원대 사카모토 교수는 “농약의 사용이 적은 도시 쪽이 꿀벌 사육에는 더 적합하며, 미끼로 꿀벌 무리를 쉽게 모으게 되면 일반가정에서도 양봉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나카교區 구청 옥상에 있는 벌통

공기 청정도 경보의 역효과

미국 유타주 / 환경·안전

- 유타주는 솔트레이크(Salt Lake)의 안개로 인해 미국 내에서 공기 청정도가 가장 안 좋은 주의 하나로 꼽힘. 솔트레이크에서 발생하는 안개는 유타주 가구의 약 80%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이러한 이유로 유타주 교통국은 공기 청정도 경보시스템(신호등과 같이 녹색, 노랑, 빨강으로 공기 청정도를 구분함)을 통해 매일 그날의 공기 청정도를 시민들에게 알려줌으로써 승용차 운행을 억제하고자 하고 있음. 그러나 지난 10년간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최근 연구에서, 교통국의 기대와는 달리 공기 청정도 경보시스템이 노랑과 빨강일 경우(공기청정도가 안 좋은 경우) 오히려 승용차의 통행이 증가하는 현상이 발견되어 주목을 받고 있음.
-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지리학과 Harvey Miller 교수는 2001년부터 2011년까지 약 10년 동안 유타주 28개 지점에서 수집된 겨울과 여름의 교통데이터를 이용하여 공기 청정도 경보시스템의 효과를 연구하였는데, 연구 결과 전체적으로 노란색 경고등이 켜지는 날에는 여름과 겨울 모두 교통량이 증가하였으며 빨간색 경고등이 켜지는 날에는 여름에는 교통량이 다소 감소하였지만, 겨울에는 교통량이 증가한 것을 발견함.
 - Miller 교수에 따르면 승용차 이용자는 교통국의 의도와는 달리 공기 청정도가 낮을수록 도로나 대중교통 이용이 승용차 이용보다 불편함을 준다고 판단을 하고 오히려 승용차를 이용하게 된다는 것임.
 - 이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현상은 다운타운보다는 Big Cottonwood Canyon과 Little Cottonwood Canyon과 같은 휴양지에서 더 발생함. 또한 이러한 현상은 금요일과 토요일에 더 발생함. 노란색 경고등이 켜지는 월요일은 녹색 경고등이 켜지는 월요일보다 약 5.8%의 교통량이 증가하고, 금요일은 약 10.5%, 토요일은 약 12.2% 증가하였음.

- 결국 연구결과에 따르면, 비록 유타 시민들이 환경문제에 민감하고 공공 정책에 협조적이더라도 휴일에 휴양지를 가거나 놀러갈 때 안 좋은 공기 속에서 대중교통 이용이나 도보를 하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이와 비슷한 현상은 시카고나 아틀랜타에서도 발생함.
- 이번 연구 결과를 볼 때, 정책결정자는 정책 시행 시 이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을 사전에 좀 더 깊이 있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http://www.theatlanticcities.com/commute/2013/09/utahs-air-quality-alerts-may-have-inadvertently-put-more-cars-road/6860/>

도시교통

구체적인 운행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파일럿 운전자

프로그램 시행

뉴욕市 / 도시교통

- 뉴욕市는 에너지 효율적이고 사고가 적은 운전행태를 연구하기 위해 500대의 차량에 운행정보 및 교통상황 등을 수집할 있는 시스템을 장착하고 도심에 운행하도록 하는 파일럿(pilot) 운전자 프로그램을 시행할 예정임.
- 미국 연방교통국의 도움으로 진행하게 되는 이번 프로젝트는 도심의 교통량이 많은 Queen, Brooklyn 지역의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할 예정이며 운전자뿐만 아니라 교통시스템을 통제하는 센터에서도 같은 정보를 수집하여 연구에 사용할 계획임.
- 각 차량이 생산하고 공유하게 될 정보는 차량의 연료소모에서부터 가·감속 행태, 운전자 경로 선택, 각 도로별 운행속도 등으로 뉴욕市는 이러한 자료를 수집하여 운전자에게 통계자료로 제공하며, 또 운행 자료를 토대로 개인의 운전

행태가 차량의 연비 및 통행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게 됨.

- 한편으로는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교통관리센터에서도 도시전반의 교통흐름에 대한 자료를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이러한 자료는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검지기를 통해 획득되는 집합화되어 있는 기존 데이터와는 달리, 구체적인 운전자 행태정보로서 도심 교통상황 파악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한 예로 운전자들이 가·감속을 하게 되는 구간이 어디인지, 연료소모가 많이 일어나는 구간이 어디인지에 대한 상세 정보 획득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됨.
- 이러한 데이터는 개별 보험회사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어 2013년 2월에는 Allstate, Progressive 등의 보험회사에서도 운전자들의 운전행태를 바탕으로 보험료를 적용하는 연구를 진행 중임.

http://online.wsj.com/article/SB10001424127887324463604579045192925847348.html?mod=wsj_share_tweet

미국 최초로 헬멧 대여하는 자동 판매기 설치

미국 보스턴市 / 도시교통

- 보스턴市는 2012년 여름부터 자전거 공유 프로그램인 Hubway를 시행하고 있는데, 최근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헬멧 대여 자판기를 미국 최초로 자전거 대여소에 설치하였음.
- 헬멧 대여 자판기에 대한 아이디어는 2011년 MIT에서 상품 디자인 수업을 수강한 대학생들이 한 학기 프로젝트였던 상품의 프로토타입(prototype)을 만드는 과제에서 처음 나온 아이디어였는데 이후 지속적인 연구를 거쳐 상품으로 양산하게 된 것임.
- 헬멧 대여 자판기는 태양열 전지로 작동하며, 각 자판기마다 36개의 헬멧을 대

여할 수 있고 자전거 렌탈 키오스크와 같이 터치스크린으로 처리하게 되어 있음.



- 헬멧 대여비는 2불(약 2,160원) 정도이고 판매도 가능함.
 - 자전거 이용자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대여한 자전거를 돌려주는 곳에서 헬멧도 같이 돌려주면 됨. 이후에 헬멧은 다시 헬멧 대여 자판기를 만든 회사로 돌아와 안전성을 검사받고 살균 소독 후에 다시 자판기로 가게 됨.
 - 헬멧 대여 자판기는 현재 4개의 자전거 대여소에만 설치되어 있지만 2013년 10월까지 16개의 대여소에 추가로 설치될 예정임.
- 멕시코시티市, 델버른市, 벤쿠버市 등에서는 자전거를 이용할 때 반드시 헬멧을 착용해야 한다는 법 때문에 자전거 공유 프로그램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데 보스턴市의 헬멧 대여 자판기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http://www.psfk.com/2013/05/boston-helmet-rental-vendin-machine.html>

카셰어링 서비스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 마련

미국 캘리포니아州 / 도시교통

- 캘리포니아州는 최근 승용차 공유제 어플리케이션(ridesharing applications, 자가용을 이용하는 운전자에게 승용차 공유를 원하는 승객을 연결해주는 어플)을 통해

미국 내에서는 최초로 승용차 공유제의 법제화를 시도함. 약 1년 전 캘리포니아 공공사업위원회(California Public Utilities Commission, CPUC)는 승객 안전 문제로 Lyft, Sidecar, Uber와 같은 카셰어링 서비스 제공 회사에게 사업정지 명령을 내린바 있음. 이에 카셰어링 서비스 제공 회사는 CPUC에 대해 승용차 공유제의 시스템화를 적극적으로 요청하였는데 마침내 법적인 보호 장치가 마련된 것임.

- CPUC는 이러한 카셰어링 서비스 제공 회사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와 관리를 위해 Transportation Network Companies(TNC)라는 새로운 교통사업의 범주를 신설하고 승용차 공유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규제 및 관리하기로 결정함. 그 첫 번째 시행으로 CPUC는 승용차 공유를 원하는 운전자에 대한 교육과 모든 운전자에 대해 일백만달러(약 10억 7천만원)의 보험 가입을 의무화함.
 - TNC를 통해 승용차 공유제는 빠르게 발전하는 새로운 형태의 교통사업이 될 것이며, 캘리포니아주는 이를 안전하게 규제 및 관리할 수 있는 최초의 리더가 될 것으로 보임. 또한 TNC의 등장으로 운전자 및 소비자는 전통적인 교통수단 서비스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교통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게 되어 통행 수단에 대한 선택의 폭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 카셰어링 서비스 제공 회사들 또한 이러한 CPUC의 결정에 적극 환영하는 뜻을 밝힘,
 - 카셰어링 서비스 제공 회사인 Sidecar는 승용차 공유제가 시행된 이후 16년 만에 법적인 안전장치가 생긴 것에 대해, 승용차 공유제가 캘리포니아 내에서 더욱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승용차 공유를 원하는 소비자에게 승용차 공유제 어플리케이션의 사용을 권고하고 있음. Sidecar는 내년부터는 캘리포니아 외에 미국 내 다른 州까지 사업영역을 확장할 예정임.
- 승용차 공유제 이용자들은 승용차 공유가 택시나 다른 대중교통 서비스와는 달리 친구 또는 동료와 함께 승용차를 이용하는 느낌이 강하며, 이번 CPUC의 결정에 따라 좀 더 안전하게 승용차 공유제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환영하고 있음.

http://www.wnyc.org/story/california-regulators-ok-ridesharing-apps/?utm_source=/story/ny-gov-cuomo-distracted-driving-getting-worse-not-better/&utm_medium=treatment&utm_campaign=section_rightrail

BRT와 Streetcar의 경제적 파급 효과

미국 / 도시교통

- 시정 공무원들은 대중교통이 도시 내 이동수단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도시 내 경제활동의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음. 하지만 실제로 교통에 대한 투자 자본이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대중교통도 효과가 큰 수단과 그렇지 못한 수단을 구분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해 연구가 많이 이루어진 BRT보다 연구가 미미한 Streetcar(노면전차)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 블로그 Transpotationist의 운영자이자 교통학자인 David Levinson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BRT의 효과에 대해서는 잘 알려진 반면 Streetcar의 효과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았다고 함.
 - Levinson는 BRT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분석한 논문에서, 서울의 BRT는 주거환경에 대한 발전을 가져왔는데 이를 통해 약 10%의 토지 프리미엄 효과, 약 25%의 BRT 정류장 인근의 소매업 이익 증대 효과, 그리고 약 54%의 고용 효과를 가져왔다고 분석하고 있음. 또 콜럼비아의 보고타의 경우 BRT 정류장까지 매 5분 간격으로 도보 거리가 증가할수록 주거임대료가 7-9%로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함.
 - 비슷한 현상을 미국 내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데, 피츠버그의 경우 BRT 정류장으로부터 1,000 피트 떨어진 곳의 부동산 값어치가 100 피트 떨어진 곳의 부동산에 비해 약 \$10,000 정도 가격이 떨어졌음. 최근 보스턴 콘도의 경우에는 BRT Silver Line을 통해서 약 7.6%의 가격 프리미엄이 발생하였음.
- 하지만, 불행하게도 Streetcar의 경제적인 효과분석은 많지 않음. 2010년 Federal

Transit Administration은 13개의 미국 내 Streetcar 시스템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지만 Streetcar의 경제적인 효과는 정확히 측정하지 못했음.

- 비록 최근 오레곤주의 포틀랜드를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에서 약 95백만 달러가 들어간 Streetcar 설치를 통해 약 778 백만 달러의 지역 발전 효과를 가져왔다고 보고된 적이 있지만, Streetcar 자체가 지역 발전 효과를 직접적으로 일으켰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음. 오히려 지역 개발 계획, 민간 투자, 거리 재정비 및 다른 새로운 변화들이 지역 발전 효과를 불러일으켰다는 의견이 많음.
- 현재 미국 내 Streetcar는 대부분 상대적으로 새롭게 도입된 것들이어서 이에 대한 경제적인 효과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함. 하지만 이러한 Streetcar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의문은 이미 Streetcar의 이동성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도입 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음.

<http://www.theatlanticcities.com/jobs-and-economy/2013/09/when-it-comes-streetcars-and-economic-development-theres-still-so-much-we-dont-know/6899/>